

2024년 6월 24일 전북 2024 - 36호

보도자료

이 자료는 6월 25일 조간부터 취급하여
주십시오. 단, 통신/방송/인터넷 매체는
6월 24일 12:00 이후부터 취급 가능

제 목 : 2024년 2/4분기 전북경제 모니터링 결과

“상세 내용은 붙임 참조”

문의처 : 전북본부 기획조사팀 과장 정원석, 조사역 이슬빈

Tel : 250-4082, 4083 Fax : 250-4095 E-mail : jeonbuk@bok.or.kr

“한국은행 전북본부 보도자료는 인터넷(<http://www.bok.or.kr>)에서 지역본부-전북본부로 접속)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

(붙임1)

전북경제 모니터링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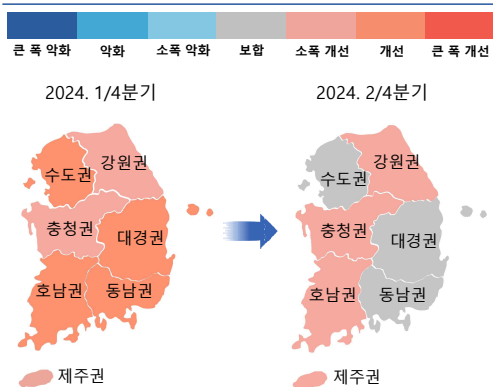
(1) 개황

전북 경기 소폭 개선

2024년 2/4분기 중 전북지역 경기는 전분기에 비해 소폭 개선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생산 동향을 보면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 전분기 대비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요의 경우 소비는 소폭 증가하고, 설비투자 및 수출은 보합, 건설투자는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4분기 중 전국 권역별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충청권, 호남권, 강원권, 제주권이 소폭 개선되었으며 수도권, 동남권, 대경권은 보합세를 보였다.

권역별 경기¹⁾



주: 1) 권역별로 업체 및 유관기관 등을 모니터링하여 입수한 생산, 수요 및 고용 동향 등을 토대로 종합 판단

(2) 생산

제조업 생산 소폭 증가

2024년 2/4분기 중 제조업 생산은 전분기 대비 소폭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업종별로는 자동차, 자동차부품, 철강, 전자부품, 화학제품, 음식료품 등이 증가하였으나 제지, 금속가공제품, 비금속제품 등은 감소하였고, 기계, 전기장비 등은 보합 수준을 유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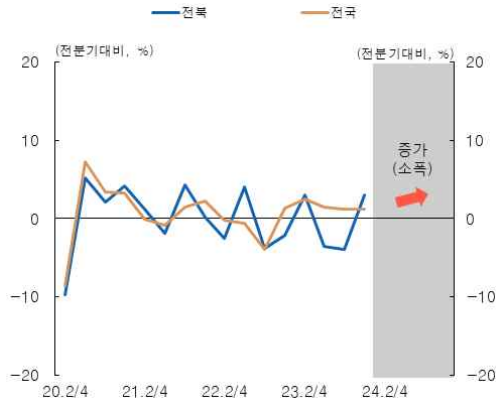
자동차의 경우 버스생산은 수소전기버스 증산을 통해 확대되고 있으나 트럭생산은 글로벌 수요감소 및 내수부진에 의해 2024년 1/4분기 보다 소폭 감소하였다. 자동차부품은 브레이크 관련 부품 생산 증가 및 수소차용 전력변환장치 제품의 판매 지속 등으로 생산량이 증가하였다. 철강의 경우 특수강 판매량 반등 및 판가 상승을 바탕으로 생산이 소폭 증가하였다. 전자부품은 반도체 업황 개선 및 AI 수요 확대로 수익성 높은 동박적층판¹⁾ 생산 등이 확대되면서 생산이 소폭 증가하였다. 화학제품은 폴리에스터 업황 개선 및 분체도료 관련 신규 수요 확보 등으로 생산이 소폭 증대되었다. 음식료품의 경우 생산성 향상 및 수요 증가 등에 의해 생산물량이 소폭 늘어났다.

반면, 제지는 국내 제지수요 감소 및 중국경기 부진 등의 영향으로 생산이 소폭 감소했다. 금속가공제품의 경우 수소전기승용차 판매량 감소로 인해 생산이 소폭 감소했다. 비금속제품은 건설 및 주류 등 전방산업 부진으로 인해 재고가 증가하는 가운데 생산이 소폭 감소하였다.

기계의 경우 글로벌 건설기계 수요 부진 지속과 딜러들의 선제적인 재고축소가 맞물리면서 생산물량이 1/4분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전기장비는 중국관련 매출이 지연되면서 1/4분기와 유사한 수준의 생산을 이어갔다.

1) 두산 전자BG는 지난해 엔비디아 AI 반도체 기판용 동박적층판(CCL; Copper Clad Laminate) 공급업체로 선정되어 올해 4분기 출시 예정인 AI 반도체용 동박적층판 양산에 들어간 가운데 하반기부터 본격 공급을 시작한다. 동박적층판은 구리를 얇게 편 박막(동박)을 여러 장 겹쳐 놓은 것으로, 절연 역할을 하는 레진과 층격을 흡수하는 보강기재를 결합한다.

제조업 지역경기전망지수¹⁾



주: 1) 전분기대비 지표는 계절조정(SA) 계열 기준
 2) 음영내의 확실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2/4분기 중 제조업 생산의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냄
 자료: 한국은행

모니터링 결과 2024년 3/4분기 제조업 생산은 전분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동차는 내수부진 및 지정학적 리스크 지속으로 2/4분기와 유사한 수준의 생산에 그칠 전망이다. 철강은 건설·중장비·기계 등 전방산업의 부진으로 인해 큰 반등이 어려워 2/4분기와 유사한 생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화학제품 및 제지의 경우 전분기 생산량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기계는 글로벌 경기부진 및 미국 대통령 선거의 불확실성 등으로 생산량이 2/4분기와 유사한 보합 수준을 이어갈 전망이다.

반면, 자동차부품의 경우 브레이크 관련 부품 및 공조제품을 중심으로 내수판매가 확대되어 생산이 증가할 전망이다. 전자부품은 AI 수요 확대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생산이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속가공제품은 친환경 버스 도입을 위한 충전소 추가 건립으로 수소 전기차 판매량이 확대되어 생산이 소폭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음식료품은 극성수기 수요증가 및 생산라인 증설 등으로 생산이 소폭 증가할 전망이다. 전기장비는 생산효율이 높은 연료전지 양산²⁾ 및 수주 물량 납품 지속 등으로 생산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비금속제품은 전방산업 업황 부진이 지속되어 추가적인 감산을 고려함에 따라 생산이 소폭 감소할 전망이다.

서비스업 생산 소폭 증가

2024년 2/4분기 중 서비스업 생산은 전분기에 비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이 증가하였고, 부동산업과 운수업은 보합 수준을 나타내었다.

도소매업은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³⁾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형소매점 개별 이슈, 지역 행사 재개 등에 힘입어 소폭 증가하였다. 대형소매점의 경우 백화점은 리뉴얼, 문화행사 개최 등으로 신규 고객이 늘어나면서 매출이 소폭 증가하였으나, 대형마트는 식료품 물가 상승으로 가계의 소비 위축이 지속되면서 전분기 수준을 유지하였다. 재래시장은 야시장 재개장⁴⁾ 등으로 방문객이 늘면서 매출이 소폭 증가하였다. 자동차 판매는 고물가로 인한 내구재 소비 위축이 지속되면서 전분기의 부진한 흐름을 이어나갔다. 한편, 숙박·음식점업은 전주국제영화제⁵⁾ 개최 등으로

2) 두산퓨얼셀은 기존 인산형 연료전지(PAFC) 모델인 4CSA(440kw)보다 생산 효율이 25% 가량 높은 5CSA(550kw)를 하반기부터 양산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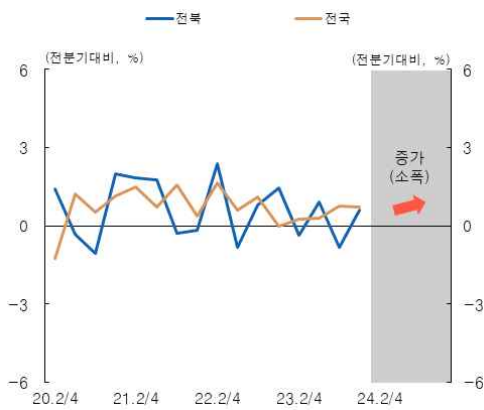
3) 4~5월 중 전북지역 소비자심리지수는 94.0(4월 94.7, 5월 93.2)으로 2024년 1/4분기(월평균 95.4)보다 1.4p 하락하였다.

4) 전주 남부시장 야시장은 노후화 시설 정비 등을 위해 1~2월 휴장하였다가 지난 3월 1일 재개장하였다.

국내외 관광객이 늘면서 증가하였다. 부동산업은 주택매매시장 부진이 지속되면서 전분기 수준을 유지하였다. 운수업은 이동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시내버스 파업 등으로 전분기 수준에 그쳤다.

재는 의류·잡화, 비내구재는 자동차 연료 등을 중심으로 증가하였다. 내구재의 경우 레저용품의 판매는 늘었으나, 자동차⁶⁾, 가구·가전 등의 판매가 줄어들면서 전분기 수준을 유지하였다. 서비스 소비는 예술, 스포츠 및 여가 서비스업 관련 소비가 늘면서 소폭 증가하였다.

서비스업 지역경기전망지수¹⁾²⁾



주: 1) 전분기대비 지표는 계절조정(SA) 계열 기준
 2) 음영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2/4분기 중 서비스업 생산의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냄
 자료: 한국은행

모니터링 결과 2024년 3/4분기 서비스업 생산은 고물가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이 당분간 이어지면서 2/4분기보다 소폭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소매판매액지수¹⁾²⁾



주: 1) 전분기대비 지표는 계절조정(SA) 계열 기준
 2) 음영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2/4분기 중 민간소비의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냄
 자료: 통계청, 권역별 계절조정(SA) 계열은 한국은행 자체 추산

모니터링 결과 2024년 3/4분기 소비는 고금리·고물가 지속으로 소비자의 구매력이 약화되면서 2/4분기에 비해 소폭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3) 수 요

소비 소폭 증가

2024년 2/4분기 중 소비는 전분기에 비해 소폭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재화소비는 외부활동 증가로 준내구재와 비내구재 소비가 늘면서 소폭 증가하였다. 준내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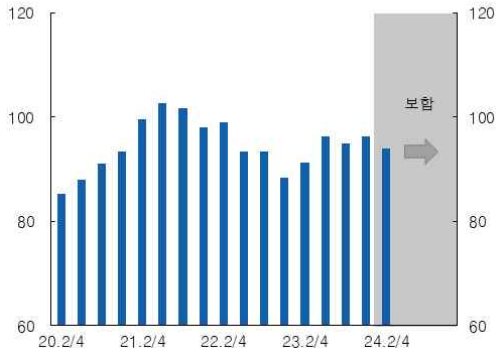
설비투자 보험

2024년 2/4분기 중 설비투자는 1/4분기와 유사한 보험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화학제품의 경우 정기적인 유지보수 공사가 지속되었다. 비금속제품은 탄소섬유 생산라인 증설이 일부 진행되기도 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업황 부진 등에 의해 추가적인 설비투자가 없는 상황

5) 제25회 전주국제영화제는 5월 1일부터 5월 10일까지 열흘간 개최되었으며 오프라인 관객 수는 지난해보다 1.3% 증가한 6만 6,911명을 기록하였다.
 6) 4~5월 중 전북지역 승용차 신규등록대수(월평균)는 3,368대로 1/4분기 평균(3,389대)보다 0.6% 감소하였다.

이다. 전기장비는 고체산화물연료전지(SOFC) 시제품 생산 및 전극 생산시설 인수 등으로 설비투자가 소폭 증가하였다.

설비투자실행BSI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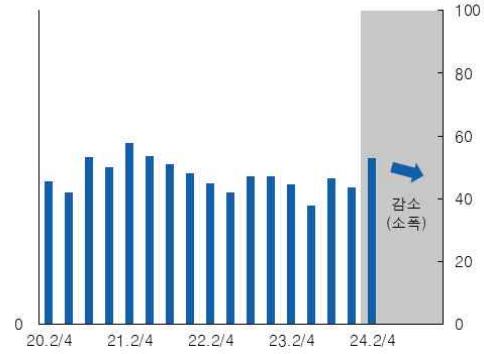
주: 1) 음영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2/4분기 중 설비투자의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내며, 음영내의 막대 그래프는 4월 및 5월 실적치의 평균
자료: 한국은행

모니터링 결과 2024년 3/4분기 설비투자도 전분기와 유사한 보합 수준이 될 전망이다. 전자부품의 경우 동박적층판 생산확대를 위해 설비투자 증가가 예상되나 여타 업종에서는 전방산업 부진 및 전망의 불확실성 증가 등으로 당분간 유지보수 수준의 설비투자가 지속 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투자 소폭 감소

2024년 2/4분기 중 건설투자는 공사비 상승 및 고금리 장기화 등으로 소폭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모니터링 결과 2024년 3/4분기 건설투자는 미분양 증가 및 원자재값 상승 등으로 건설투자 감소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업 업황BSI¹⁾



주: 1) 음영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2/4분기 중 건설투자의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내며, 음영내의 막대 그래프는 4월 및 5월 실적치의 평균
자료: 한국은행

수출 보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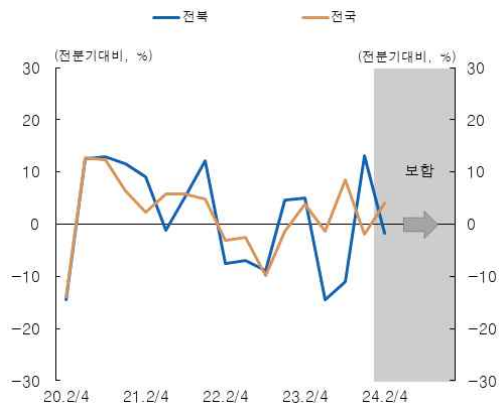
2024년 2/4분기 중 수출(일평균)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이어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품목별로는 자동차, 기계, 비금속 등이 보합 수준을 유지하였고, 화학제품은 1/4분기에 비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는 글로벌 경기 부진 및 중국과의 경쟁 심화 지속 등으로 이전 분기와 유사한 수준의 수출을 이어갈 전망이다. 기계의 경우 북미 수출은 견조할 것으로 보이나 유럽 및 신흥시장의 수요 부진으로 보합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비금속제품은 신규설비 가동 이후 늘어난 수출물량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화학제품은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높은 운송운임이 지속⁷⁾되어 수출이 부진한 상황이다.

7) 최근 이란과 이스라엘 분쟁으로 인해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의 경우 5월말 기준 3,044.77으로 1/4분기말(1,730.98) 대비 75.9% 상승하였다.

수출(일평균)¹⁾



주: 1) 음영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2/4분기 중 수출의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내며, 음영내의 선 그래프는 4월 및 5월 실적치의 평균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모니터링 결과 방산 및 AI 반도체 관련 소재 수출을 제외하고 글로벌 경기 둔화 지속 등으로 수출 여건의 개선이 쉽지 않아 2024년 3/4분기 수출은 이전 분기와 비슷한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의 경우 상용차 부문 글로벌 대기 수요 부진 지속으로 2/4분기와 수출이 유사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전자부품은 방산용 센서 및 AI 반도체용 핵심소재 수요 증가 등으로 수출이 확대될 전망이다.

(붙임2) 현장리포트

새만금 개발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과제 :
이차전지 특화단지를 중심으로

최근 새만금 개발사업⁸⁾은 국가첨단전략산업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2023.7월) 등에 힘입어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다. 새만금은 도시의 주요 기능별로 5개 권역⁹⁾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각 권역별로 기능에 따라 복합적으로 개발되고 있다. 특히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는 현재 이차전지를 비롯하여 전기차, 부품(자동차·조선·기계), 첨단소재 및 신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기업의 시설이 입주하였으며 일부는 이미 가동 중이다.

새만금 개발사업 추진현황



자료: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개발청

새만금은 지난해 7월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¹⁰⁾된 가운데 여러 이차전지 기업들의 투자가 지속¹¹⁾되고 있으며, 주로 국가산업단지의 5, 6 공구를 중심으로 기업의 집적이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의 계획에 의하면 새만금은 전구체¹²⁾ 등 이차전지 핵심광물을 가공하고 배터리 리사이클링을 중심으로 국내 배터리 공급망에서 고유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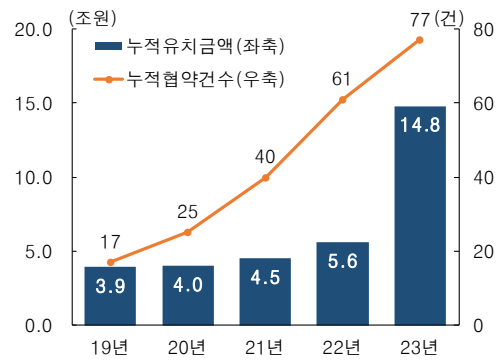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의 이차전지 기업부지 현황



자료: 전북특별자치도(2023)

2023년 12월 기준으로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은 77개이며 총투자유치금액은 14.8 조원에 달한다. 그중 이차전지 관련 기업은 22개로 현재 8개 기업이 공장 착공에 돌입하였고 3개 기업은 현재 공장을 가동 중이다. 이는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과 더불어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2023.6월) 등으로 인해 각종 투자 인센티브가 확대·강화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새만금 산업단지 투자 유치현황



자료: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개발청

8) 1991년 시작된 새만금 개발사업은 부안군~군산시 간 33.9km의 방조제를 축조하여 총 409km²의 부지를 신규조성 및 개발하는 총 사업비 22.8조 규모의 국책사업이다.
 9) 각 도시의 주요 기능에 따라 산업·연구용지(새만금 국가산업단지 포함), 친환경 복합도시, 관광 레저용지, 농생명권역, 배후도시용지 등 5개 권역으로 구분된다.
 10) 전북 새만금, 포항, 충북(청주), 울산의 4개 지역이 선정되었다(2023.7.20.).
 11) 대표적으로 LG화학(2023.4월)과 1.2조, LS그룹(2023.8월, 11월)과 2.2조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하였다.
 12) 이차전지는 크게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의 4가지 소재부품으로 구성되는데, 전구체는 양극재의 핵심원료로서 양극재 원가의 약 70%를 차지한다.

새만금산업단지 이차전지 분야별 투자기업 현황(2023.12월 기준)

구분(개)	주요 내용
양극재(13) ²⁾	LS-엘엔에프, LS MnM, (주)GEM코리아, 미래나노텍, (주)에코앤드림, (주)배터리솔루션, 통바이, (주)동명기업, 에스이머티리얼스(주), (주)리튬포어스, (주)하이드로리튬, (주)LG화학, 백광산업
음극재(2)	대주전자재료(주), 에이원신소재
전해질(4)	(주)이디엘, (주)천보BLS, 이피켄텍(주), (주)덕산테크피아
리사이클링(2)	성일하이텍(주) I, II
기타(1)	(주)테이팩스

주: 1) 밑줄 친 기업(8개)은 착공, 파란색으로 표시한 기업(3개)은 현재 공장 가동중
 2) 양극재 원료인 전구체 생산을 포함
 자료: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산업단지사업단

최근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EU의 배터리법(Battery Regulation)이 시행되는 등 세계적으로 핵심광물에 대한 특정국 의존도를 완화하고 친환경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여건은 국내 이차전지 기업들에게 기회가 될 여지가 있다.

미국 IRA에서는 친환경 차량에 탑재된 배터리에 대해 핵심광물 요건과 부품 요건을 충족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작년 4월 발표된 IRA 전기차 보조금 세부지침에 따르면 중국과 달리 한국에서 생산된 양극재나 음극재를 탑재한 전기차의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데¹³⁾ 이로 인해 우리나라 기업들의 가격경쟁력 제고가 기대된다.

새만금의 경우 양극재 등 소재 부문을 중심으로 생산과 수출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IRA의 해외우려기관(FEOC) 규정¹⁴⁾으로 인해 중국과 합작투자를 진행한 기업들은 지분조정이나 공급망 재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¹⁵⁾되며, 금년 말 미국의 대선 결과에 따라 IRA 지원 규모가 축소될 경우 이차전지 기업들의 투자가 위축될 위험요인도 존재한다.

미국 IRA의 배터리 요건(2024년 기준)

핵심광물 요건	부품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물 총부가치의 50% 이상을 북미나 美FTA체결국에서 생산 배터리 주요 소재(양극재 등)의 제조공정을 광물가공으로 인정 (추출 또는 가공시 요건 충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품 총부가치의 60% 이상을 북미나 美FTA체결국에서 생산 부품 범위를 양극판, 음극판, 분리막, 전해질, 셀 모듈로 정의 (양극재, 등 구성재료는 불포함)

자료: 미국 재무부

한편 EU에서는 금년 2월부터 배터리법이 시행되면서 탄소발자국 신고제, 재활용 원료사용 의무화, 배터리 여권제도 등의 친환경 규제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이차전지 기업들은 중국에 비해 친환경 분야의 경쟁력이 우수¹⁶⁾하여 유럽시장에서의 입지¹⁷⁾를 보다 강화할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향후 배터리 재활용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¹⁸⁾되고 있어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것으로 판단된다.

EU 배터리법(Battery Regulation)의 주요 내용

규정	내용
탄소발자국 신고제(2025-)	배터리 전 주기에 걸쳐 탄소배출량을 측정하고 신고를 의무화
재활용 원료사용 의무화 제도(2031-)	배터리 핵심광물(리튬, 니켈 등)의 일정 비율만큼 재활용을 의무화
배터리 여권제도(2026-)	배터리의 생산·사용 정보를 전자정보의 형태로 기록

자료: EU 집행위원회

이러한 대외여건을 바탕으로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투자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각종 기반시설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2024.1월)함에 따라 자치권이 크게 확대된 만큼, 이차전지 산업에 적합한 맞춤형 특례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 13) 중국산 이차전지의 경우 핵심광물의 제조와 가공이 대부분 중국 내에서 이루어져 IRA의 광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데다 미국 내 생산공장이 부재하여 부품요건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동 세액공제를 받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된다.
- 14) 해외우려기관(Foreign Entity Of Concern) 규정은 중국, 북한, 러시아, 이란 4개국 정부의 통제나 관할 하의 법인 혹은 이들 국가의 지분이나 의결권이 25% 이상인 법인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에서 배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 15) LG화학(화유코발트와 합작)과 SK온(GEM과 합작)은 새만금개발청에 5월 말까지 통보하기로 한 투자계획을 연기하였으며, 내년 초 예정되었던 협약 시기도 연장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 16) Bloomberg NEF(2022)의 글로벌 리튬이온 배터리 공급망 순위 조사에 의하면 중국은 원료나 배터리 제조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하였지만 ESG 분야에서는 17위에 불과하여 우리나라(ESG 분야 10위)의 상대적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 17) 2022년 기준 EU 배터리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점유율은 63.4%로 중국(34.0%)과 일본(2.6%)을 크게 앞섰다(SNE Research).
- 18) 2022년 80억 달러, 2025년 208억 달러에 달하고 연평균 17%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SNE Research).